

주 제 / 현대예배에 대한 이해와 평가

(The Understanding and Evaluation on the Contemporary Worship)

제출자 / 이정현 박사(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실천신학 교수)

I. 서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시행하면서 역점을 두었던 부분은 예배였다. 왜냐하면 당시 카톨릭교회의 예배는 성직자들의 독점물이었고, 의식적이었으며, 회중들은 단지 구경꾼에 불과 했기 때문이다. 예배가 형식화되어 있었고, 라틴어로 진행되는 예배를 회중들은 이해할 수 없어서 동참할 수 없었다. 결국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으며, 회중들에게도 은혜가 되지 못했다. 이런 이유에서 개혁자들이 예배를 개혁하려고 하였고 쾰링겐, 부처 그리고 칼빈은 초대교회와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이런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많은 개신교회는 더 개혁적이며, 창조적인,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신선한 예배가 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대예배도 이 같은 역사적 배경과 요청 속에서 일어난 것이라 본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삶의 현장인 사회와 가정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 포용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의 열린 모습이나, 교사위주의 일방적 주입식 교육에서 학생 중심의 열린교육이나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재택 근무와 열린 가정의 모습에서 급속한 변화를 읽을 수 있다. 그 변화의 영향력은 국가의 최소 집단인 가정에서부터 사회와 국가를 거쳐 세계에 이르기까지 급속하면서도 강하게 미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음악, 상업미술, 건축, 환경예술, 드라마, 춤, 매스미디어와 함께 가속화되고 있다. 달리 말하면 현대의 산업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의 가치관과 중요성이 광속으로 변화 또는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역사와 문화적 장르 속에서 태어나는 예배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멀티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대화 매체의 변화에 따라 그 표현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마치 400년 전의 종교개혁자들의 외침같이 등장했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나타난 것이 구도자 예배나 인터넷 예배이다. 이 같은 흐름의 등장을 교회의 마이너스 성장의 한 탈출구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창조적 형태의 예배에 대한 추구이든지, 충분한 신학적 검증을 거쳐서 교회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영상, 음악, 문자 및 음성 등을 복합적으로 처리하는 멀티 미디어를 이용한 예배는 그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전함으로, 목회자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다. 재택예배와 같은 멀티 미디어 서비스가 증가할 경우 기존교회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배의 새로운 도전 속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미국에서 왜 구도자 예배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구도자 예배의 목적과 주 내용은 무엇인가? 한국의 열린예배가 미국의 구도자 예배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열린예배의 또 다른 형태는 무엇인가? 사이버예배는 무엇이며 그것의 현 상황은 어떠한가? 가상예배의 신학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현대예배의 미래적 전망은 어떠한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지 아니하고는 시대적인 조류에 좌충우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 받은 종으로서 교회를 건전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라도 좋든 싫든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입장을 정리해 두

어야 할 것이다.

시대조류에 따라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시도 때문에 예배를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들은 현대예배를 교회성장의 한 방편으로써 시행하기도 하고, 주위 교회에서 실시하니까 맹목적으로 덩달아 많은 경비를 들여 시행하기도 한다. 또한 대형교회들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다른 교회와 수준을 맞추기 위하여 또는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청년들을 붙들어 두기 위한 수단으로 이 예배를 개설하기도 한다. 아무튼 이런 것이 가능케 된 것은 다변화된 문화와 과학 기술의 발달 때문이라 보고, 아울러 이것은 예배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세기말부터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난 현대예배의 역사적, 성경적 기원을 찾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수용 불, 가능면을 찾아 교회 예배에 적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그리하여 기존 신자들은 은혜와 생명력이 넘치는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고 불신자들과 구도자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있다. 결국 이런 목적은 기독교 예배를 성경적, 역사적 토대 위에 바로 세우자는 것-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이며, 더 나아가 성경적 교회로 성장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이런 목적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주로 1, 2차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되, 인터뷰와 통계자료 그리고 인터넷 자료도 이용할 것이다. 본 연구가 성실히 이루어진다면, 21세기 혼잡하게 될 다양한 예배들을 건전하게 비판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며 또한, 여과과정을 통하여 얻게 된 정보를 개 교회에 적용함으로 활기찬 예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본론

20세기 후반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예배형태가 나타나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구도자예배’(seeker’s service)이다. 이 예배를 한국에서는 흔히 ‘모판예배’ 혹은 ‘열린예배’라고 부른다. 여기에 언급된 열린예배는 예배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예배형태의 의식적이고 딱딱한 형식을 줄이는 측면으로 새롭게 디자인된 예배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으나 미국의 구도자예배, ‘구도자에 민감한 예배’와는 그 형태와 내용이 다른 것이다. 다시말해 이 용어에 대한 부정적 측면은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면서 용어가 잘못 적용되어 전이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기본적 개념에는 동의하나 방법과 내용은 새롭게 구성된, 상황화의 새 형태의 예배를 구상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현실적으로 볼 때 구도자예배와 열린예배는 그 대상, 방법, 목적, 내용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므로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본인은 구도자예배(seeker’s service)와 구도자에 민감한 예배(seeker sensitive service), 열린예배, 더 나아가서 ‘사이버예배’(cyber worship)를 각각 구분하고 이것을 합쳐서 ‘현대예배’(contemporary worship)라고 부른다.

1. 현대예배의 용어, 기원 및 성경적 배경

1) 용어

이런 예배들을 현대예배라 부르는 것은 단순히 시기적으로 현대에 일어난 공중예배의 형태라는 점에서이다. 미국의 구도자예배의 기원을 보더라도 1970년대 초 즉, 20세기 말에 미국 현대문화를 배경으로 일어난 한 예배 스타일이며, 한국의 경우도 1990년대 후반에 열린

예배가 도입, 시행 됨으로 연대기적으로 볼 때 현대라는 것이다. 즉, 현대라는 시기에 현대 문화를 수단으로하여 불신자들과 도를 찾는 자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시도된 다양한 예배형태를 총칭하여 현대예배라 한다.

최근 한국교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는 열린예배는 미국의 구도자예배에 대한 한국적 번역용어로 이는 최근 몇 년동안 사회전반에 걸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일련의 사회적 변화들, 예를 들면 열린음악회, 열린교육, 열린정치, 열린국회, 열린사회와 병행되는 용어이다. 사회학적인 배경 속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보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보다 신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문동학 “열린예배의 신학적 이해와 영성” 목회와 신학 1997년 4월호:51).

2) 기원

현대예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라면 그 기원을 추구해 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기원을 말하는 자는 없다. 관련 책이나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현대예배의 시조인 ‘구도자예배’의 기원을 윌로우크릭커뮤니티교회(Willow Creek Community Church)의 빌 하이벨스(Bill Hybels) 목사에게서 찾는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한국교회와 예배”라는 책을 쓴 김연택 박사는 구도자예배의 기원을 빌 하이벨스 목사로 본다. 빌 하이벨스가 윌로우크릭커뮤니티교회를 설립하여(1975년 10월) 섬기기 전에 작은 교회(South Park Church)의 부 교역자로 섬긴 적이 있는데, 바로 그 교회의 담임목사가 이미 구도자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김 연택 교수는 지적한다. “...이 목사도 1970년대 초에 주일아침 전통적인 예배 후에는 현대적인 예배를 시작하였다”(김연택 건강한 교회와 예배 서울:프리셉트 2000:318). 당시 하이벨스는 성경공부그룹을 인도하였고 동역자 데이브 홀보(Dave Holmbo)는 음악과 드라마와 프로그램 기획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성경공부를 하는 학생들 중 아주 적은 수만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주말의 새로운 이벤트를 구상하게 되었다. 찾아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하여 환경을 좀더 새롭게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짧은 드라마(skit)를 도입하고 미디어를 사용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김만형 “구도자예배란 무엇인가?” 목회와 신학 1997년 4월호:40). 그러므로 구도자예배의 기원을 바로 그 교회에서 찾고자 하나 이론적으로 체계화 하거나 성공적으로 실행한 것이 빈약하여 후 시대 교회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기에 그 교회에서 구도자예배의 기원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구도자예배는 과연 누가, 언제 처음으로 시작했는가? 그렇다면 구도자예배를 말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 예배의 시조를 빌 하이벨스에게서 찾는다.

그러나 본인은 빌 하이벨스보다 오히려 먼저 이 형태의 예배를 시작한 것은 갈보리교회(Calvary Chapel)의 척 스미스(Chuck Smith) 목사라고 여긴다. 그는 1960년대 중반, 히피족과 마약 중독자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문화배경 속에서 탈 기독교문화적인 요소의 새 예배모델을 갖게된다. 척 스미스 목사의 이 같은 사역은 당시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정상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변화되는 것으로 더욱 활기를 띄게 되었다. 1970년대 초반에는 “잡지의 커버 스토리를 장식하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번져 나가게 되었는데, 한달에 평균 9백명 이상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캘리포니아 해변 코로나 델 말(Corona Del Mar)에서 히피족들과 마약 중독자들에게 베풀어진 감격적인 세례식 장면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김병삼 열린예배? 현대예배! 서울:프리셉트 1999:50). 척 스미스 목사의 목회대상은 분명했고 이들을 위해 당시 문화적인 것들을 예배에 도입함으로써 그들에게 좀더 친숙

한 예배가 되도록 했다. 주로 전통양식의 예배에서 자유로운 예배로 바뀌었던 주 요소는 음악과 메시지 전달 수단이었다. 그는 예배 음악을 과감하게 록큰롤(rock and roll)로 바꾸었는데 이로 인하여 복음주의 교단들로부터 ‘불건전한 교회’ 혹은 ‘유행을 따라가는 교회’(faddish)라는 지탄을 받거나 복음을 너무 가볍게 취급한다는 비평도 받게 된다(상게서). 또한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언어전달 방법보다는 갖가지 시청각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많은 사람에게 쉽고 편안하게 진리를 전달하고자 했다. 아무튼 척 스미스 목사가 사회의 소외된 자들과 불신자들을 배려하여 탈 기독교문화적 예배형태를 취한 것이 구도자예배의 기원이 되었다. 척 스미스 목사(갈보리교회)에 이어, 1975년 23살의 나이로 구도자 중심의 교회를 개척하는 하이벨스(월로우크릭커뮤니티교회), 뒤이어서 1978년 불신자 전도 사역으로 전통 루터교회를 개혁한 월트 칼레스타드도 등장했고(기쁨의 교회), 다음으로 1980년 릭 워렌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여(새들백교회) 불신자의 영혼을 품고 예배와 전도와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구도자예배의 역사적 발전과정이다.

구도자예배의 기원과 발전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특수한 형태의 예배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발전되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김 병삼 씨는 두가지 원인을 말한다(김병삼 전게서:28-30). 첫째, 미국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현상(The "De-Churching" of America)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2차 대전을 전후하여 90%에 달하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출석했지만 60년대에 들어서서는 2/3 정도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고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더 현저히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일어났다. 라일 쉘러(Lyle Schller)는 1910년부터 1930년대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던 시절이며 1940년대부터 1950년대는 미국교회의 전성기였으나 1980년부터는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선교국이 아니며 피 선교국이 되기 시작했다(Schaller 44 Questions for Church Planters, TN:Abingdon, 1991:78)고 말한다. 교회는 더 이상 청소년들의 관심이 되지 못했고 교회의 모든 것과 청소년들의 문화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생기게 되었다. 둘째, 미국인들이 록큰롤을 좋아하게 된 현상(The "Rock' n' Rolling" of America) 때문이다. 베이비 부머들(Baby Boomers, 46년에서 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88년 통계에 의하면 7천 7백 26만 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하고 있다)은 새로운 음악, 즉 록큰롤을 접하게 되었고 이것은 그들에게 음악 이상의 의미를 주었으며, 따라서 전통적인 교회 음악은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였다. 이런 위기 의식에서, 다시 말해 청소년들의 현저한 교회이탈과 새로운 음악의 대중화 때문에 현대예배가 출발하게 된 것이다.

3) 성경적 배경

구도자예배가 ‘시장 중심적’, ‘소비자 중심적’이라는 말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성경 중심적이기보다는 사람중심의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라고 보는데서 기인한다. 흔히 이 예배를 성경에 위배되는 사역으로 간주해 버리기 쉬우나 그들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다. 구도자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성경적 근거를 고린도전서 9장에서 찾는다. 미시간 주 그랜드 래피즈의 갈보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에드답슨 목사는 고전9:19-23을 근거로 하여, ‘유대인을 얻고자 함’(20), ‘이방인을 얻고자 함’(21), ‘약한 자를 얻고자 하는’(22) 바울의 심령과 태도를 말하면서 모조록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 이 예배의 성경적 배경이라 했다(답슨 열린예배 실습 보고서 서울:홍성사 1998:93-103). 답슨은 여기의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to win as many as possible)의 영어 마지막 네 단어의 첫 글자를 조합하여 a map 전략이라고 했다(상게서).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이 같은, 전도의 다양한 대상과 다양한 전략은 오직 한가지 목적만을 가지는데, 그것은 곧 융통성과 조정과 변화를 통하여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선교학적 용어로 ‘초 문화적 정체화’(cross-cultural identification)라고 부른다. 바울은 아래와 같이 고백한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 하고자 함이라”(고전9:22-23). 답슨의 논리는 바울은 복음 확산을 위해 과감하게 자신의 종교적 전통과 방법을 포기하고 구원 받아야 할 대상자들의 문화를 고려하여 복음 전파의 새 방법을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기존 교회가 갖는 독특한 언어, 용어, 행동, 분위기, 음악 등은 구도자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 장애가 되는 요소로 보고 이것들을 그들의 기호에 맞추는데 노력했고 이것을 구도자예배의 성경적 근거로 삼은 것이다.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여러 모양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간절한 바램이며, 이것을 근거로 하여 그들의 신학과 실천을 쌓게 된 것이다.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는 “나는 왜 구도자예배를 시작하는가”라는 글에서 ‘참 목자는 아흔 아홉 마리가 우리에게 다 들어와 있어도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그 아흔 아홉 마리를 잠시 두고 길을 떠난다’(마18:12)는 말씀을 근거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마음 때문에 이 예배를 시작한다고 했다(하용조 “나는 왜 구도자예배를 시작하는가” 목회와 신학 1997년 4월호:68.). 결국 구도자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이 두 성경 구절을 기초로 하여 그들의 예배활동을 하는 것이다.

2. 현대예배의 종류와 그 내용

20세기 말에 상황화 또는 문맥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예배의 형태가 주로 네가지로 나타났다고 본다. 여기서의 상황화(contextualization) 또는 문맥화라는 것은 역사적, 문화적 현실 상황 속에서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닌, 받는 사람이 가장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 교인들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근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 같은 시대적 환경에 따라 현대에 등장한 변형된 예배의 형태는 ‘구도자예배’, ‘구도자에 민감한 예배’, ‘열린예배’ 그리고 ‘사이버예배’이다.

1) 구도자예배(seeker service)

김연택 교수는 구도자예배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나 체험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거나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솔직하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현대적인 예배이다”라고 정의한다(김연택 전계서 2000:99). 따라서, 구도자예배는 복음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는 여건에서 음악, 비디오, 드라마 등을 활용함으로써 복음을 명료하게 전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기존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가 되지 못하고 그들의 예배 또한 비정상적인 것 같이 보일 것이다. 부르는 노래, 말씀 전달 스타일, 사용하는 말투, 토론의 주제가 그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특히 젊은 청소년과 젊은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이 더 전통교회의 예배를 접하는데 거리감을 준다. 1970년대 중반에, 빌 하이벨스는 예배를 찾으나 기존교회 예배를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없는 구도자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설립해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월로우크릭커뮤니티교회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위 많은 교회들로부터 비난도 받았고, 이단에 속한 것으로 오해도 받았으며, 사교처럼 취급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서 교회보다는 불신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고 교회는 계속 성장하게 되었다. 1988년부터 91년까지는 세계가 그 교회를 주목하는 성장기였고, 1992년부터 94년까지의 정체성 위기를 거쳐 1995년 이후부터는 성장을 거듭하여, 지금은 세계교회에 폭발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하이벨스 월로우크릭커뮤니티교회 서울:디모데 1997:191-286).

현재 월로우크릭커뮤니티교회의 구도자예배의 구성요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첫째 부분은 음악, 비디오, 무용, 드라마를 통하여 말씀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은 매주 바뀐다. 그러나 두 번째 부분인 설교는 매주일 거의 동일하다. 현재 월로우크릭교회가 드리는 구도자예배는 “찬양, 단막 드라마, 환영, 성경인용, 기도, 헌금, 설교, 기도”의 순으로 진행된다(김연택 전게서 2000:120, 이 예배와 신자들을 위해 주중에 드리는 예배 사이의 차이는 주중 예배의 찬양이 좀더 강조되고 십일조를 드리는 순서가 있으며 또한 성경에 대해 좀더 심도있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 연주되는 음악은 경쾌하고 현대적이며, 설교자의 메시지에 부합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찬송을 부르도록 참여자들에게 요구하지는 않는다. 드라마는 설교를 위한 사고과정을 준비시키는 목적으로 현재의 논쟁거리와 관점들을 유머스럽고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민감하게 다룬다. 성경 읽기는 주로 개인 이야기나 시사적 사건과 관계 있는 구절들을 읽는다. 환영은 익명으로 하되, 교회에 관한 부가적인 정보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알려 주고, 구도자들이 관심 가질만한 강좌를 안내하기도 한다. 기도는 메시지와 연결하여 간단히 한다. 헌금은 구도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설교는 구도자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적합성이나 현시대적인 논쟁거리들을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한다. 현대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동일한 순서와 방법을 따라 4회씩 주말예배를 드리고 있는 월로우크릭교회는 총 3만 5천명 정도가 모이고, 8천 개가 넘는 소그룹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그랜드 래피츠에 있는 갈보리교회의 주말 구도자예배의 순서도 월로우크릭교회와 별 차이가 없다. “개막, 환영, 드라마, 헌금, 간증, 노래, 성경 읽기, 이야기식 설교, 질문과 대답, 마침기도”(답슨 전게서 1998:199-232)이며, 특이한 요소로 ‘질문과 대답’이 있는데, 미리 나누어준 질문용지를 거두어, 큰 소리로 하나 하나 질문을 읽어가며 대답을 한다. 이 순서는 이 교회만 갖는 특징이나, 후에는 많은 질문에 대한 시간상의 이유로 메시지가 끝난 후 갖게 했다. 그리고 처음 몇 년 동안은 찬송(노래)을 다함께 불렀으나, 후에 불신자들의 불참으로 이 시간을 없앴다(상게서:86).

위에서 진술한 구도자예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김만형 “구도자예배란 무엇인가?” 1997년 4월호:43-46). 첫째는, 교회가 통계조사를 통하여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필요를 파악했다. 국내에서는 개척하는 교회에서나 기존교회에서 사역현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지역 주민들의 영육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이 찾고있는 것과 필요가 무엇인가를 파악함으로써 그들을 이해하려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월로우크릭커뮤니티나 새들백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 졌으며,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맞는 예배를 구상하게 된 것이다. 둘째는, 예배당 분위기를 온화한 카페 분위기로 만든다. 강단에는 십자가도 없고 그 외 그 어떤 종교적인 상징물도 없으며, 단지 그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정원식으로 꾸몄고 거기에 온화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조명을 곁들였다. 셋째는, 스태프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배가 기획된다는 것이다. 기존교회는 대부분 목사가 일방적으로 설교준비를 하고 기도와 찬송, 광고를 준비하고 찬양만 지휘자가 준비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구도자예배를 실시하는 교회에서는 예배의 모든 부분이 다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세밀히 기획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넷째는, 예배 중에 환희와 기쁨이 있다. 대체적으로 전

통교회로부터 물려받은 예배의 분위기는 경건이라는 미명아래 무겁고 어두우며 경직되어 있으나 구도자예배에서는 환희와 기쁨의 축제적 요소를 살리고 있다. 다섯째는, 음악을 중요시 하며, 현대음악을 사용한다. 영적 고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노래할 수 있는 곡이 많다. 또한 고정된 스타일이 아닌 자유롭고 주로 빠른 템포의 곡을 부른다. 밴드를 많이 사용하고 가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영상매체들을 적절히 이용한다. 여섯째는, 전체 예배의 진행과 흐름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다. 전통교회의 예배에는 순서와 순서 사이에 기다리는 시간과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 비해 여기서는 지루하지 않고 생동감 있게 진행된다. 일곱째는, 복음전달 수단이 다양하며 언어적인 것보다 시·청각적인 기기들을 이용한다. 여덟째, 예배의 순서를 고정시키지 않고 자주 변화를 준다. 이 예배의 전체 흐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형식이 있지만 매 주마다 늘 변화를 시도한다. 비디오를 이용하더라도 어떤 때는 인터뷰 스타일, 어떤 때는 드라마, 다른 때는 편집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찬양을 할 때도 어떤 때는 팀이, 어떤 때는 독창자가, 또 어떤 때는 연주만 하기도 한다. 광고를 하는 데도 드라마, 비디오, 구두설명 등을 자유롭게 이용한다. 아홉번째,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예배 후 그 예배를 평가한다. 예배 이후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요소와 내용, 인도자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과 환경까지를 평가하는 작업을 함으로 좀더 나은 예배를 위해 노력한다.

2) 구도자에 민감한 예배(seeker sensitive service)

이 예배를 구도자예배와 분리시킨 단순한 이유는 복음전파의 대상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예배 시 메시지 내용과 예배의 각 요소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구도자예배의 주 타겟은 불신자와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구도자에 민감한 예배는 구도자가 기존 신자들의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와 훈련된 신자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들을 도와주며 양육한다는 입장이다. 전자를 ‘구도자 중심적 예배’(seeker-oriented service)라 할 수 있고, 후자를 ‘구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high participation seeker service)라고 할 수 있다. 릭 위렌 목사가 시무하는 새들백교회의 예배가 구도자에 민감한 예배인데, 물론 이 예배에도 전통적인 형식이나 예배음악은 없으나 성경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전통적인 메시지 전달방법은 아직도 많이 잔존한다. 불신자들이 기존 신자와 함께 축제적이며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릭 위렌 목사가 말한 것을 근거로(위렌 전계서 1995:270이하) 구도자에 민감한 예배를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대음악과 영상 매체와 편안한 환경을 사용하여 헌신되고 성숙한 신자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새들백교회는 주말예배를 고집하는 윌로우크릭교회와 달리 구도자에 민감한 예배를 주일에 드리고 수요일에는 신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한 구도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훈련한다.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는 전체찬양, 환영 및 기도, 찬양단 찬양, 헌금, 메시지 및 간증, 찬양이다(김연택 전계서:121). 이 순서 상에 나타난 특징을 보면 전도 대상자들에게 맞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찬양이 많다는 것이다. 위렌 자신이 훌륭한 음악 리더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팝, 록 오케스트라 팀은 수준급 연주자들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설교를 강조하여 기존 교인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구도자예배를 구사하는 다른 교회는 메시지 전달 방법으로 드라마나 비디오를 최대한 이용하지만 위렌은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영상매체만을 이용하여 성경 중심의 순수 복음만을 설교한다.

김연택 교수는 릭 위렌의 ‘구도자에 민감한 예배’를 호평하면서, 한국교회가 구도자예배를

구사하려면 적어도 15년 정도의 계획을 갖고 시작해야 하지만 구도자에 민감한 예배는 지금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김연택 2000:120). 본인도 여기에 동의하지만 예배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예배 기획이 선행되어야 하고 결코 기존의 전통예배와 혼합시키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신앙성장과 훈련의 목적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데에는 확실한 예배 목적 차이를 보이므로 이 두 예배가 혼합되면 두 예배 모두 효과가 반감될 것이다. 릭 워렌은 한국교회에 구도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했으며 또한 새로운 형태의 예배창출에 큰 영향을 끼쳤다.

3) 열린예배

본인이 말하는 열린예배는 미국적 배경을 갖고 있는 구도자예배를 말하지 않고 한국적 상황 속에서 출발한 변형된 형태의 새로운 예배를 말한다. 열린예배는 미국의 새 예배 스타일과 그 내용뿐만 아니라 목적 자체도 다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불신자들과 친구따라 한 두 번 교회에 나와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구도자예배와는 달리 열린예배의 대상은 20-30대의 신세대 신자들과 초대받은 불신자들과 스쳐 지나가는 약간의 사람들이다. 1996년 12월에 한국 최초로 열린예배를 드린 예수촌교회의 손종태 목사는 인터뷰와 글에서 분명 열린예배에서 맞추고 있는 참여대상을 20-30대 불신자 그룹이라고 했으나 실제 예배에서는 불신자가 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통계이다. 지금까지의 예배 중 불신자 그룹이 최고 많이 모였을 때가 20% 정도였다고 한다(CCM Look 열려라! 예배).

이 같은 현상은 ‘온누리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이 교회가 개설한 열린예배는 예수촌교회가 표방하는 열린예배의 목적과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본다. 이 교회의 열린예배는 현 기독교 문화적인 괴리감으로 인하여 교회를 이탈하는 젊은 세대들을 계속 붙들어 주고, 또한 이미 낙심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예배 기회를 주고, 겸하여 불신자 전도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판단의 사실 여부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불신자들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온누리교회의 열린예배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매주 1회(주일 오후 7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참석수가 1200-2000명이지만 구도자의 평균적인 참여 수는 20여명 정도에 불과하다(장현주 간사). 이 말은 곧 열린예배의 주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라 기존신자임을 반증한다. 즉, 열린예배의 주 참여대상은 구도자가 아닌 기존 신자나 낙심자이며 겸하여 불신자 전도에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구도자예배의 그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구도자예배와 열린예배의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다. 열린예배의 내용은 진행되는 구성요소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예수촌교회의 열린예배 구성은 아래와 같다(류승대의 강의 안). ① 영상을 활용하여 MC의 멘트로 오프닝을 한다. ② CCM밴드(혹은 가수)가 3-4곡 정도 연주한다. ③ CCM AV Show, 스킷드라마, 영화상영, 포토플러스, 뮤직닥터, 애니메이션 이야기 등을 주 단위로 순환 편성하여 진행한다. ④ MC의 멘트에 이어 헌금, 이때 밴드의 연주나 가수의 헌금송이 불려진다. ⑤ 거리에서 인터뷰한 것을 영상을 통하여 본다. ⑥ 토크쇼 형식의 설교를 한다. ⑦ CCM 밴드(혹은 가수)가 설교 후 음악을 연주한다. ⑧ MC가 클로징 멘트와 광고를 한다. ⑨ CCM 밴드(혹은 가수)가 클로징 음악을 연주한다.

밖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구도자예배와 비슷하다고 보지만 둘 사이의 실제 내용은 다르며, 특히 설교의 내용에서는 현격한 차이점을 들어낸다. 갈보리교회의 답슨은 대상에 따라 설교의 내용을 크게 ‘절대적인 진리’, ‘확신에 따른 진리’, ‘취향에 따른 진리’로 3대별 하였다(답슨 1998:119-122). 이 내용 중 구도자예배 시 전해지는 메시지는 주로 ‘절대적인 진리’이나,

열린예배 시 전파되는 메시지는 ‘확신에 따른 진리’일 가능성이 높다. 열린예배의 메시지가 ‘종말, 세례, 교회, 은사, 봉사, 성령충만, 사랑’ 등등 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듣는 대상 중 불신자보다 기존신자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열린예배의 그 목적과 내용이 구도자예배와 차이가 있으므로 미국의 구도자예배와 한국의 열린예배를 예배학적 측면에서 같이 다룰 수 없다.

국내에서 열린예배를 처음 시도한 곳은 예수촌교회이며 지금 그 이름대로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교회는 온누리교회로 알려진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와 만나교회가 기존교회의 예배와 각기 또 다른 신 형태의 예배를 구상하여 실행하고 있는데, 사랑의 교회는 현대문화를 접목시킨 불신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이다. 이것은 예배라기 보다 불신자를 상대로 한 ‘전도집회’ 성격의 공연이다(evangelical event). 그들이 부르는 공식적 명칭은 ‘사랑의 나들목’이다. 이들이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이름을 쓰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신학적인 반론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매주 1회(목요일 오후 8시), 250-1200여명(이중 불신자는 20-40%)이 모여서 현대문화의 여러 장르를 통하여 메시지를 듣는다. 그 공연의 대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크게 문화사역과 말씀사역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나 말씀사역이 없을 수도 있다. 전자에는 회중음악, 영상, 드라마, 간증극, 국악 등의 프로그램이 매주 편성되어 들어가고 후자는 담담목사가 30분에 걸쳐 이야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 음악, 클로징 멘트로 순서를 마친다. 총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15분 정도이다(김형국 목사). 김 목사의 말에 따르면 ‘찾는 이 사역’(seeker ministry)은 미국의 구도자예배나 한국의 열린예배와 그 성격과 형태가 다른 자생적, 창조적, 시범적 예배의 한 형태라고 했다.

만나교회에서 시행되고있는 새로운 예배의 한 형태는 주일 낮 4부 예배로 청년, 대학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이 예배의 목적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전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일꾼으로, 헌신자로 만드는 데 있다고 했다(김병삼). 그리고 그는 이 예배를 ‘현대예배’라고 부르며, 드라마나 현대음악에 치중하지 않고 영상을 곁들인 CCM 찬양과 말씀에 주의한다고 했다.

여기서의 결론은, 미국의 구도자예배가 열린예배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상륙했다가 용어에 대한 신학적 비판, 교회의 상황, 미국과 다른 한국의 특성 때문에 개 교회와 인근의 상황에 맞추어 적당히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구상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불신자들’과 ‘젊은층의 신자’들에게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한 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예배를 창출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 할만하다.

4) 사이버예배

(1) 가상예배란?

윌리엄 김슨이 1984년에 쓴 “뉴로맨스”(Neuromancer)라는 소설에서 처음으로 가상공간이란 말이 쓰여지기 시작한 이래(권태환 조현재 정보사회의 이해 서울:미래미디어 1997:339) 15년이 지난 지금은 가상공간에서 드러지는 가상예배까지 등장했다. 현대의 과학기술은 가상공간을 출현시켰고, 이것으로 인하여 생활, 직업양식과 가치방식이 바뀌었으며, 이러한 영향하에 사이버 목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언제 어디서나 교파나 지 교회의 장벽을 뛰어넘어 목회하는 장(場)이 열린 사이버 목회의 한 부분이 가상예배이다. 가상예배란 현대인들의 상황에 맞는 다양하고 새로운 매체(New Media)에 의해 형성된 가상의 공간에서 드리는 21세기의 새로운 예배형태를 말한다(윤환철 “사이버교회가 오고 있다” 전하세 예수 1995년 겨울

호:77-79). 이 예배는 세계의 어느 곳이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민족이든 인터넷 세계 안에서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2) 인터넷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방법

우선 인터넷교회에서의 예배 시간을 보면, 주일 오전 예배는 7시, 9시, 11시로 되어있고 오후 1시 예배도 있으며, 주중에는 매일 오후 1시에 예배가 있고, 새벽예배는 매일 새벽 5시에 있다. 일반 대화방도 있어서 말씀을 듣거나 경건의 시간 이후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예배시간이 나뉘어 있다하더라도 그 순서나 설교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고 단지 주간예배와 매일예배로만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교회(금천구 시흥2동 263-25호에 사무국이 위치함. 02-853-4637)에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church@intarnetchurch21.com). 주간 예배실을 클릭하면 바탕화면과 인터넷교회 목회실에서 보내는 메시지와 함께 오른편 상단에 예배순서가 나타난다. 그것은 전통적인 예배순서로, ‘묵도, 찬송가, 교독문, 신앙고백, 기도, 설교, 찬송가, 헌금, 광고, 축도’로 되어있다. 각 순서의 진행은 기존교회와 다를 바 없으며 한 순서가 끝나면 본인이 클릭하여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과 찬송가와 설교는 문자와 음성 지원이 됨으로 보면서 함께 부르고 들을 수 있다. 헌금은 직접송금, 계좌이체와 지로로 하도록 되어있고 헌금 다음, 축도 이전에는 예배자의 신상을 기록하도록 기록란을 준비했다.

앞서 밝혔듯이 성도들간의 부족한 교제를 채우기 위해서 대화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목요일 오후 1시와 주일 오후 9시는 예배이후 교제의 시간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는 경건의 시간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나눔의 시간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3) 가상공간에 대한 신학적 찬, 반론

가상교회(virtual church)의 가상예배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하나, 구도자예배나 열린예배와 함께 현대 예배학적 종교개혁이라 할만큼 획기적 사건이다. 1990년대 말부터 가상공간에서 드러지는 개인주의적 예배에 대한 찬, 반론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갑론을박의 토론과 글들을 통하여 나타난 가상공간에 대한 부정과 긍정적인 면의 결론은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으로, 최인식은 사이버 공간은 더 이상 하나의 매체(미디어)가 아닌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최인식 미래교회와 미래신학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6:97). 이것은 기독교가 담당해야 할 궁극적 관심의 영역이 사이버스페이스로 이양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다. 둘째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받은 인간이 오히려 지나치게 매체에 종속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상계서:100-101). 성인경은 사이버 공간의 폐해를 영성측면에서 세가지로 지적한다(성인경 “사이버 문화와 인간 그리고 영성” 목회와 신학 1998년 5월호:197). “첫째, 사이버 문화는 비 인간화를 조장한다. 둘째, 정체성의 혼돈을 조장한다. 셋째, 인간이 디지털 감각에 종속될 수 있다.” 한편 김연중 씨는 보다 본질적인 비판을 한다(김연중 “새로운 기독교 교육환경, 사이버공간” 충신대석사학위 청구논문 1997:68-71). 첫째로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해서 볼 때, 현실과 분리되어 현실의 법칙들이 통하지 않는 공간으로 확보된 가상의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세계로써 현실과 유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이미 실현되고 있는 가상현실의 세계로 인하여 기존의 창조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셋째로는 이미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가동되고 있는 가상공간의 경우 그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죄와 그것에 기반한 비 윤리성이라는 지적이다. 넷째로, 더 심각한 것은 가상현실에서의 정보

의 흐름이 통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부정적 견해는 주로 사이버 공간을 새로운 세계로 인식하는 넓은 의미의 정의를 채용하면서, 그 구조가 지닌 죄성을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인간의 자율성에 의존한, 하나님 없는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쌓으려는 노력이요, 이 같은 시도들이 지나치게 왜곡, 과장되어 현실의 구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멀티미디어가 주는 즐거움에 탐닉하다보면 하나님과 교회를 찾지 않는 경향들이 늘어날 것이며 결국 사이버시크니스(cybersickness)를 유발시키고 말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원만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점점 더 허구적 가상 현실을 좋아하게 되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예배는 구속받은 공동체의 예배가 아닌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으로 전락하기 쉽다. 다시말해 공동체성의 파괴와 소극적, 피동적 예배습관의 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즐기는 우를 범하게 됨으로써, 기형적인 크리스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코이노니아의 파괴’, ‘교회의 공동화’, ‘가상현실 중독증’, ‘소극적인 예배 습관’ 등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사이버예배는 성경에 도전하는 부분이 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떡과 잔을 돌리면서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이고 아울러 세례식이나 임직식도 불가하다. 또한 주님은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18:20)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인터넷예배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방해하여 공동체적인 행위를 이기적인 개인주의로 만든 것이 아닌가? 마태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의 말씀과도 충돌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10:24-25). 공 예배를 대치한 모니터 앞에서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는 모이기를 폐하는 사단의 전략일 수 있으며, 이런 습관들을 쫓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한다. 여러 항(項)의 신학적인 요인보다 단 한 구절의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더 둔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가상예배를 부정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복음을 세계 어느 곳이나 편만하게 전파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의 기독교적인 가장 큰 강점이다.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환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나 산간 오지 거주자나 낙도에 근무하는 사람들, 군부대, 등대지기 같은 특수 직업 종사자들의 편리한 예배생활을 위함도 되지만 무엇보다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나 복음이 전무한 지역에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구사회에서 인쇄기술이 발견되었을 때 교회가 그것을 이용하였고, 방송의 전파가 발사되었을 때 그것도 선교에 이용하였으며, 이제는 가상공간을 통하여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게 된 것도 교회의 크나큰 유익이다.

3. 현대예배의 미래적 전망과 수용 가능성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현대예배는 지속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구도자예배나 구도자에 민감한 예배의 변형된 형태의 예배가 당분간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형태의 예배를 그대로 답습하는 데에는 미국과는 다른 상황적 어려움 때문에 재고할 것이며 한국의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상황에 맞는 새로운 예배를 구사할 것이다. 이미 대형교회에서는 구도자예배를 그대로 카피하는 데에, 신학적 문화적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 나름대로의 창조적인 예배를 기획하고 있다. 그 좋은 예가 앞에서 지적한대로 사랑의 교회와 만나교회이다. 이것은 21세기의 다 문화적 배경 속에서 다양한 예배 형태로 발전하여 참

여자 위주의 전문적인 예배가 성행할 것이다. 예를 들면, 유년부와 초등부의 예배가 따로 있듯이 연령이나 신앙 정도에 따라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장년부 예배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어떤 교회에서 20-30대의 젊은 층을 겨냥하여 복음을 그들이 좋아하는 문화의 옷을 입혀 전달 하고자 예배를 기획했다면 더 많은 수의 다른 연령층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예배를 변화,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미래에는 지금까지의 현대 예배의 양, 수를 넘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더구나 컴퓨터의 발달과 기계에 의존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상예배 역시 빠른 속도로 확산 될 것이다. 그것이 성찬이나 임직식을 할 수 없다는 폐단과 비 성경적이라는 반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컴퓨터, 인터넷, 멀티미디어, 정보가 우리 생활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가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영적, 실재적, 인격적, 가시적 교회가 아닌 ‘가상’일 뿐이라는 강렬한 비판을 받으면서도(김영한 “가상공간에 대한 신학적 진단” 목회와 신학 1998년 2월호:44-45) 성장하는 것은 수요·공급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배, 교육, 상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찾는 이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전파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사이버교회를 운영하더라도 성경에 위배되는 부분은 용납될 수 없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가르침을 받고 친교하고 봉사하는 공동체가 없이 가상 공간만을 이용한 목회는 재고되어야 한다. 칼빈이 말한 교회의 3대 표지 중, 말씀 선포는 가능하나 성례집행이나 권징은 사실상 불가능함으로 사이버교회는 교회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 그래서 초창기의 발전과는 달리 21세기 중반에는 가상공간의 예배는 쇠퇴하고 성도들은 새롭게 창출된 기존교회의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예배가 성경적, 신학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구도자예배와 열린예배라는 용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고 한다. 웨버나 레이번 외, 여러 학자들이 거의 동일하게 정의하는 예배의 개념은 ‘신자들의 새 생명의 활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나타난 신격의 찬탄과 그의 강력한 구속의 행위를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합당한 영광, 존귀와 순종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기를 노력하는 것’(Webber Worship-Old and New 1982:87; Rayburn O Come, Let Us Worship 1980:20-21)이다. 이 정의 가운데서 나타난 분명한 특징은 예배가 ‘신자들의 활동’이라는 점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비 신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그래서 구도자 및 열린예배가 ‘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보다는 어떻게 하면 회중들에게 더 흥미로운 예배를 보여 줄 것인가에 관심을 보이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회중의 기호에 맞는 ‘회중 지향적 구도자예배는 예배형식을 여흥적으로 만들어 갈 위험성이 있다’(이상규 “구도자예배가 가진 예배적 약점” 목회와 신학 1997년 4월호:57). 또한 편한 것, 즉흥적인 것, 혹은 감성적인 것을 찾다가 예배의 본질과 대상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열린예배를 진행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불신자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주장하나(손종태 강 의안), 합당한 논리나 정확한 성경구절이 아니다. 그래서 구도자예배나 열린예배에서 사용하는 ‘예배’라는 용어를 수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열의만큼은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복음전달 수단이 시대마다 변화는 현대문화라는 점에 선입감을 가지고 경계할 필요는 없다. 거세게 밀려오는 문화의 파고를 막거나 빨리 적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문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대적 문화의 파도를 타야한다. 이 말은 곧 현대문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시적소에 잘 적용하므로 효과적인 복음전파의 수

단으로 써야한다는 뜻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처럼 진리를 문화라는 새 부대에 담아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교회의 사이버예배는 ‘모이기를 힘쓰라’, ‘성찬을 기념하라’는 말씀에 위배됨으로 수용할 수 없다. 단, 기존교회에서 선교, 교육 그리고 상담 차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한다면 더 없이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은 더 발전시켜 복음을 편만케 해야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해야 한다.

III. 결론

초대교회의 예배는 ‘말씀’과 ‘성찬’의 2부 구조가 분명했지만 중세 카톨릭교회는 말씀 없는 성찬중심의 의식 강조로 인하여 예배가 타락하였으므로, 이에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 당시 예배의 개혁은 의식을 강조한 카톨릭의 예배에 반항한 것이라 자연히 성찬보다 말씀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칼빈의 의도는 아니었다하더라도 제네바의 예배는 성찬을 도외시켰다. 따라서 카톨릭교회의 예배가 한 편으로 치우친 것이라면 개혁교회의 예배도 그런 면이 없지 않다. 장로교회의 예배모범인 Westminster Directory가 작성되어 전세계에 반포되었지만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각 교단의 새로운 예배가 출현함으로 ‘예배모범’도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형식적이며 틀에 박힌 듯한 무미건조한 예배가 지속됨으로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문화적 괴리감이 많았던 불신자들은 더더욱 교회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졌다. 급기야 20세기 후반, 미국 전역에 걸쳐 일어났었던 전도집회의 연장선상에서 ‘구도자예배’가 등장한다. 척 스미스, 빌 하이벨스, 월트 칼레스타드 그리고 릭 위렌에 이어서 한국의 손종태, 하용조 등으로 그 예배의 맥이 흐른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미디어의 발달로 가상교회의 출현과 함께 가상예배가 등장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 탄생하게 된 현대예배의 주목적은 지역과 인종을 초월한 복음전파에 있다. 복음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는 현대 선교학적인 입장에서 이 예배들이 시도되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된다. 비록 후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월트 칼레스테드(Walt Kallestad-The Community Church of Joy의 담임목사)는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지적했다. ‘구도자예배가 생겨나고 있는 역사와 합리성은 선교학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합리적이다’(김기영 “미국교회의 구도자예배의 현황과 흐름” 목회와 신학 1997년 4월호:66. 재인용). 답슨의 다음 말에서 무엇보다 그의 복음전파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교인을 늘리기 위해 열린예배를 시작하지 말라.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열린예배를 시작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열린예배를 시작하지 말라. 교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열린예배를 시작하지 말라. 단지 하고싶다는 생각에서 열린예배를 시작하지 말라. 오직 우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인격적이며 뜨거운 열정이 넘친다면 열린예배를 시작하라. 이런 열정이 없다면, 또 열정이 있더라도 진짜 열정이 아니라면 열린예배는 실패할 것이다”(답슨 전게서:26). 열린예배의 전 스태프들과 후원자들이 오직 이 한 마음으로 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때 그들의 구령의 열의를 알 수 있다. 분명히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기존 신자들에게 향해 있던 지대한 관심을 불신자들에게 전환시킨 것’(김기영 전게서:67)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예배도 전세계의 수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특히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함으로 은혜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개발된 것이므로 복음의 편만한 확장이 그 사명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구도자예배나 사이버예배의 내용, 복음의 전달수단 그리고 진행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다. 구도자예배와 구도자에 민감한 예배의 내용은 현대음악, 기도, 헌금, 환영과 광고, 설교 등이다. 이것은 순서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사이버예배는 다르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로, 구도자예배는 드라마, 비디오, 현대음악, 이야기 등을 이용하지만 사이버예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대예배가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전파의 대 사명을 위해 출발했다할지라도 아직 풀어야 할 성경적, 신학적 난제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구도자예배의 용어사용, 원색적 복음전파에서의 우회적 전도방법, 현란한 현대음악 사용, 인간 위주의 여흥적 예배 등등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사이버예배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신령한 공동체성 파괴, 모이기를 폐하는 일이라는 평가, 성찬식과 임직식의 불가, 주일파괴와 소극적인 예배습관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으로 개혁교회는 예배신학을 강화하고 신학생과 교우들에게 가르쳐서 성경과 전통적 개혁교회의 예배와 그렇지 않은 것 사이를 분별하도록 해야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예배를 계획할 때 개혁주의적 예배의 원리와 원칙에 준하여 예배를 구상되 고정적 요소와 유동적 요소가 있다는 것과 각 요소를 순서로 배열할 때 예배학적 흐름이 있음을 알고 기획해야 한다. 현대문화를 예배에 이용하는 것도 기독교예배의 대상과 내용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숙고하여 적용해야 한다. 가상예배의 큰 난점인 성경적 배경이 약하다는 것과 성찬거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위해서는 사이버처치의 사이버예배는 피하고 기존교회의 선교적, 교육적 수단으로 이용해야 하며, 교회에서의 성찬을 말씀과 같이 강조하고 바르게 이행해야 한다. (끝)